

## 인문정신의 소유자이자 뿌리

### 온몸으로 자유를 살아낸 김수영

#### ‘김수영을 위하여’

강신주 지음



을 타인의 흉내를 내지 않고 ‘제대로’ 살아가려 필사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저자는 이야기 한다. ‘한번 밖에 없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스타일로 살아내야한다’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자 인문학이

추구하는 자유정신이고, 이 ‘자유정신’을 온몸으로 보여준다. 저자는 자유의 의미를 뼈속까지 각인 시켰던 6·25와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의 기억, 친구와 살립을 나눠린 아래 김현경과의 애증, 민주주의와 자유를 얹합하는 세상과의 불화 등 그의 삶을 시와 견주어가면서 독자들에게 다양한 인문학적 성찰을 갖게 한다.

저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한다. 김수영의 시와 김수영의 삶은 오랫동안 비틀거렸던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었고 ‘피붙이’와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으스러지게 설움에 몸을 태우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니/그러나 나는 그 으스러진 설움의 풍경마저 싫어진다/나는 너무나 자주 설움과 입을 맞추었기 때문에/가을에 땅에 늘어가는 거미처럼 몸이 까맣게 타 버렸다’

‘인문 커뮤니티’를 꿈꾸는 천년의 상상이 폐낸 첫번째 책이다. 〈천년의 상상·2만3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철학자 강신주의 책 중 처음 접한 건 ‘욕망’ 흔들리는 삶을 위한 인문학적 보고서’라는 부제가 달린 ‘상처받지 않은 권리’(2000)였다.

철학자 짐벨과 시인 이상, 철학자 보드리아르와 시인 유하가 짜簰를 이뤄 자본주의의 속살을 하나하나씩 드러낸 이 책은 아주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다. 그러나 ‘욕망’에 흔들려보지 않은 사람 없을테니 돈과 허영, 도시, 불안, 위기 훌릭 등을 다른 책의 어느 부분에서는 흡칫 놀라게 된다.

출판전문 잡지 ‘기획회의’가 특집으로 다룬 정도로 강신주는 요즘 주목받는 철학자다. ‘철학적 시 읽기의 즐거움’ 등을 펴낸 그가 시인 김수영을 새롭게 읽은 ‘김수영을 위하여’-우리 인문학의 자긍심’을 폭파했다.

김수영이 누구인가. 1968년 술에 취한 채 집앞 버스 종점에 내렸다 버스에 치여 우리 곁을 갑자기 떠나버린 그는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바람보다 늦게 울어도/바람보다 먼저 웃는다’는 시를 통해 참여시인의 상징처럼 불려온 인물이다. 한편으로는 모더니스트의 표본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저자는 김수영을 온몸으로 자유를 살아낸 시인, 강력한 인문정신의 소유자이자 우리 인문정신의 뿌리라고 말한다. 우리가 김수영을 읽는 건 곧 자유를 읽는 것이라는 저자는 그의 시와 삶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 ‘김수영을 위하여’

강신주 지음

큰 틀거리는 그가 4년간 홍대 앞 상상마당에서 진행해온 ‘인문학 강좌’ 중 ‘시인 김수영’을 테마로 한 10번의 강좌다.

책은 ‘시인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부분의 표제는 이 책이 이야기하고 싶은 바를 정확히 보여준다. 저자는 자유의 의미를 뼈속까지 각인 시켰던 6·25와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의 기억, 친구와 살립을 나눠린 아래 김현경과의 애증, 민주주의와 자유를 얹합하는 세상과의 불화 등 그의 삶을 시와 견주어가면서 독자들에게 다양한 인문학적 성찰을 갖게 한다.

저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한다. 김수영의 시와 김수영의 삶은 오랫동안 비틀거렸던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었고 ‘피붙이’와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으스러지게 설움에 몸을 태우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니/그러나 나는 그 으스러진 설움의 풍경마저 싫어진다/나는 너무나 자주 설움과 입을 맞추었기 때문에/가을에 땅에 늘어가는 거미처럼 몸이 까맣게 타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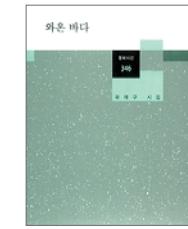
‘인문 커뮤니티’를 꿈꾸는 천년의 상상이 폐낸 첫번째 책이다. 〈천년의 상상·2만3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삶의 휴식처... 그리고 그리움의 풍경들

### ‘와온 바다’

곽재구 지음



참 반갑다. 13년 만에 나온 시집이어서, ‘와온(臥溫) 바다’, ‘백야도’ 등 낯익은 지명과 정겨운 시어들을 접할 수 있어서다.

곽재구 시인의 일곱 번 째 시집 ‘와온 바다’는 ‘꽃보다 먼저 마음을 주었네’(1999년) 이후 13년 만이다. 와온 바다는 순천시 해룡면 상내리 완온마을 앞바다로, 순천만으로 알고 있는 지역민들이 훨씬 많다. 시인에겐 와온 바다는 삶의 휴식처 같은 곳이다.

지난 2002년 펴낸 산문집 ‘포구 기행’에서 그는 “마음안에 상체기를 지닌 체 와온에 이른 사람들은 금세 이 바다의 싱싱한 삶의 냄새에 동화되기 마련이지요. 넓은

갯벌위에 지친 육신을 눕히고 저무는 금빛 햇살을 만나노라면 마음안에 알 수 없는 삶의 향기 하나 가 스쳐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 이번에도 와온 바다는 점점 어린 시어를 견져 올린 공간으로 표현된다.

그는 또 인도 시인 타고르의 고향으로 시인이 2009년 7월부터 1년 반 정도 머물렀던 인도 산티나케탄 마을을 시작 공간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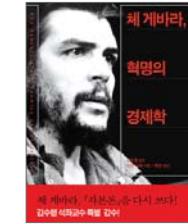
시인은 말미에 “와온 바다 가는 길에 꽃 많이 피었습니다. 꽃들의 얼굴은 어질고 작하게 살아가는 우리 나라 사람들을 닮았습니다”라고 썼다. 불쑥 찾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은가. 〈청비·8000원〉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혁명가가 아닌 경제관료 체 게바라를 만나다

### ‘체 게바라, 혁명의 경제학’

헬렌 야페 지음



‘혁명과 저항의 아이콘’ 체 게바라(1928~1967)에 대한 책은 적지 않다. 혁명가나 남반球주의 이미지에 가려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경제 관료로서 그의 지성적 면모가 잘 드러나는 ‘행적’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체 게바라, 혁명의 경제학’이 그동한 술하게 나온 전기나 회고록과 차별화된 대목이다.

체 게바라는 1959년부터 1965년까지 쿠바 혁명정부의 국립은행 총재와 산업부 흥부장, 산업부 장관을 지냈다. 그는 이 때 자본주의와 협력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생산 능력과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느냐의 문제, 즉 쿠바식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몰골

했다.

특히 토지개혁을 이끌어내고 화폐 개혁을 단행해 혁명정부 집권 2년 만에 중앙정부가 국가 산업을 관장, 통제하는 ‘계획경제’로 탈바꿈시킨 정책을 비롯, 산업 부작전 시설 실시한 예산재정 시스템과 자율제정 시스템 등 체 게바라의 철학이 담긴 경제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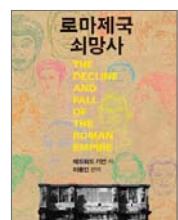
저자인 헬렌 야페 런던 유니버시티칼리지 교수는 체 게바라와 쿠바 경제 재건에 동참했던 동료 60명의 인터뷰, 게바라가 산업부 장관 시절 주재한 회의 필기록, 경제전망 문건,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경제관료 체 게바라의 활약을 소개하고 있다. 〈실천문학·2만3000원〉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한권으로 만나는 장대한 로마 역사

### ‘로마제국 쇠퇴사’

에드워드 기번 지음



번을 더 읽을 정도로 관심을 기울였다. 이 때문인지 외연분과 달리

번거롭게 각주를 참고하면서 읽을 필요가 없다. 소

제목을 달아 독자들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가 하면, 축약하면서도 원서에 사용된 문장을

95% 이상 사용하는 등 핵심을 빠트리지 않았다. 원본 중에서 빠진 것은 로

마제국 쇠퇴의 과정과 무관한 지리, 민속, 전투대형, 군사작전, 종세 귀족의 족보 등에 불과하다.

〈책과 함께·4만8000원〉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교육 선진국 네덜란드를 배우다

### ‘공교육 천국 네덜란드’

정현숙 지음



있어 치열한 대학 입시 경쟁률도 없다.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환상적인 나라다.

‘공교육 천국 네덜란드’는 광주MBC 기자를 지낸 정현숙씨가 유학생인 남편을 따라 건너간 뒤 10년간 세 자녀를 교육시키며 보고 느낀 점을 엮었다. 한국 교육 현실과 비교하면 놀랍기만 한 네덜란드 교육문화가 고스란히 담겼다. 꿈 같은 네덜란드 교육 문화를 접하는 동안 국내 교육 현실은 잠시 제쳐놓는 게 좋다.

〈한글·1만7000원〉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한국 전통 건축양식의 치열한 진화

### ‘사라진 건축의 그림자’

서현 지음



‘배선코를 닦은 처마 곡선의 부드러움’, ‘배흘림 기둥의 넉넉하고 유려한 곡선’.

한국 처마의 곡선미를 형상화했다거나 한국 특유의 여유로움과 멋을 살렸다는 등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말이다.

서현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는 ‘사라진 건축의 그림자 – 전통건축, 그 종의 기원’에서 자연친화적인 아름다움 속에 서만 한옥을 들여다보는 것을 거부한다. 대신,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결과물이라는 데 주목했다. 빈틈없는 구조물을 짓기 위해 단단한 나무를 깎고 다듬었던 목수의 입장에서 처마곡선·배흘림기둥·단청 등 한옥의 주요 구조물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 처마 곡선의 경우 뒷산의 능선과 조화를 이루

기 위한 조상들의 미적 관점에 앞서 빗물의 피해로부터 기둥을 보호한다는 실용적 측면에서 만들 어졌다고 지적한다.

배흘림 기둥도 비슷하다. 흘림 이란 밀동에서 푸대기까지 기둥

굵기를 조금씩 달리자 하는 것.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나 강릉 임영관 삼문 등은 기둥 중간의 배는 부르고 아래위로 가면서 점점 가늘어지는 배흘림 기둥을 세워놓았다. 기둥 중간이 가늘어 보이는 착시 현상을 보정하기 위해 불룩하게 해놓았다

는 게 지금까지의 종론.

저자는 그러나 기둥을 세우기 위한 주춧돌에 주목한다. 주춧돌이 가공이 쉽지 않은 석재인데, 작업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밀동의 지름을 작은 필요가 있다

는 점에서 배를 불룩하고 밀동이 좁은 형태를 자연스럽게 갖춰나겠다고 추론한다. 〈효령출판·1만6000원〉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세계철학 백과사전 = 샤를르 페팽과 쥘이 라는 두 명의 젊은 인문학자가 58명의 동·서양 철학자의 사상을 기발한 만화와 재기 넘치는 글로 풀어냈다. 공자 반점에 들어 메뉴를 고르고 플라톤·나이트클럽을 찾았던 구경하고 몽테뉴와 인터넷으로 채팅하고 칸트가 개발한 온라인 게임을 즐기면서 만화가 가미된 책장을 넘기다 보면 ‘철학은 지루하다’는 생각이 사라진다. 〈이숲·1만7000원〉

▲우리 시대 노동의 생애 = 기자를 지냈던 조계원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2012년 한국 노동 세계의 실상과 현실을 종합적으로 짚었다. 비정규직·고용 없는 성장·정리해고·여성 노동·이주노동자·한미 자유무역 협정(FTA)·최저임금 등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노동 관련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우리 사회 노동의 객관적 현주소를 살펴놓았는데 그려내는 한편, 나름의 철학도 제시한다. 〈애플·2만3000원〉

▲좀비·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 미국의 여성 작가 조이스 캐럴 오즈가 실존 인물인 사이코 패스 연쇄살인범 제프리 디마리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아 살인자의 내면을 탐구한 공포소설. 열일곱명을 죽이고 시체를 훼손·전시하는 악행으로 ‘밀워키의 살인귀’로 불렸던 디마리는 교도소에서 동료 죄수한테 맞아 죽었다. 극단적이면서 과거스럽고 폭력적인 한 인간의 삶을 충격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포레·1만2000원〉



▲법률기의 탄생 = 이국운 한동대 교수가 법률가가 양심되는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내고 대인을 제시한다. 법률가 집단을 특권적 위상으로 구축한 ‘외정적 법복 귀족’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한국의 사법 체계가 독재 행정 권력과 부패한 입법 권력 앞에 무력한 소극적 관료 사법 체계이며 비판한다. 대안으로 정원제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체제를 개혁해 법조일원화에 기초한 민주적 판검사 임용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후마니티스·1만5000원〉

▲나의 상처는 돌 너의 상처는 꽃 =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 그대로’라며 대중에게 친숙한 뮤지컬 시인의 3번째 시집. 뮤지컬 시인은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1997년)을 냈던 뒤 15년 만에 새로운 시집을 냈다. 그동안 써놓았던 350여 편의 시 중 56편을 모아 엮었다. ‘삶에는 시로써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시인의 말처럼 이번 시집은 독특한 시적 감성과 상상력이 빛을 발한다. 〈문학의 숲·8500원〉

▲소주 한잔 = 시인이면서 소설가인 원세훈의 푸드 애세이집. 작가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겪은 음식에 얹힌 사연과 가족·이웃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낸다. 책에 나오는 음식은 하나같이 따뜻하고 정겨